

# 고은 불교대하소설

## 떠나는 처녀들

**사** 바세에 남쪽 섬부주의 한 작은 섬 무육도에서 사람 하나를 꿈꾸다가 죽은 것이 무슨 사연이겠는가. 우주 전체가 아니더라도, 섬부주의 한 반도국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곳에는 무육도랑 청춘승려인 근본 없는 인담과 우녀 그리고 상을 소싯들만 남겨져 있다. 인담은 대해의 시체를 혼자 때배에 살아다가 바다 저쪽의 파도머리에 밀어내고 돌아와 혼자 방 안에서 나을 생각 없이 며칠동안 입 다물고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런 인담을 건들지 않았다. 우녀도 두 처녀 형자들도 마치 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무육도는 무연의 섬이 된 것일까.

이럴 즈음 조선반도의 여기저기를 떠돌던 수월이 다른 때들이 목격이나 보부상 패거리 몰래 다니는 때들이 행상 때와 어울려 다니다가 북관에서 호랑이를 만나 동행자를 잃은 충격으로 얻어 빠져 영영 제 정신을 되찾지 못하는 알간이 되어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던 중 안빈 지경의 길가에 날부러진 송장이 되고 말았다.

그 일 역시 수미산 물레의 바다 속에 있는 아수라세계 같은 데서는 한갓 티끌도 아닐 터이다. 바다에 던진 밤 한톨이 되는 비유도 결맞지 않다. 누군가가 외쳤다. "보라!"

수미산이 솟아오른 북쪽 바다 밑에 가로 세로 8만유선의 상해가 있는데 그것은 그 북쪽바다의 넓이와 길이 그대로이다. 그곳 곳에 외치는 소리 따위가 들릴 까닭이 없다.

거기에 작은 섬들과 강담 그리고 바다

모인 우주가 증한, 증천은 1백만개의 세계가 모인 것이다.

다시 그 증천세계가 1천개 모여 대천세계를 이루는데 대천은 곧 3천이다. 3천이 한 1천의 3승(乘)이어서 10억개의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이 3천대천세계는 어느 세계 하나



118

큰다고 한다. "아아!" 대천세계에 이르면 10억의 해에서 10억의 법천계, 1백만의 2천천, 1천의 3천천의 초물집의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부처님의 처소를 찾아라!"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일이 한없이 간절한 것일진대 가가스로 무색계 위에 나타나는 부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허깨비일지 모른다.

"아아!"

그 누구의 입이 있다면 그 입에서는 무

려한 감탄 밖에 나올 것이 없다.

욕계 세계 무색계 이 3계란 도대체 무

거운 내용도 섞여 있었다.

그런 밤이었다. 육지의 어느 마을에서

첫 달이 해를 차 운 다음이었다.

두 사람이 마치 서투른 도둑처럼 그 신

새벽의 바깥에 나왔다. 상을과 소식이었

다.

그렇다면 우녀조차도 그들이 나오는 것

을 알아채지 못한 것인가. 그 놀라운 지각

과 감각을 가진 신들인 우녀보살조차도

두 사람은 어항 나선 길이어서인지 아

니면 며칠 전부터 저희들끼리는 길이 뜻

을 다져서인지 발빛 퍼부어대는 그 우주

의 활동 모르는 좌업 속에서도 그들의 작

업에 한가닥 주저도 없었다.

본담 자리를 비껴서서 안전한 바위고개

를 넘어갔다. 이제 섬의 남쪽에 있는 요사

재 따위가 없는 북쪽의 산적장에 다가갔다.

### 죽은 대해의 제8식은 경험해 본적 없는 우주에 진입 자신의 힘이 우주의 힘임을...

연인가. 온갖 중생이 사는 세계 아닌가.

다들 아니라 죽은 대해의 제8식은 이런 3천대천세계의 우주와 3계의 우주에 대한 이제까지 생각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우주에의 진입으로 그 자신의 힘이 곧 우주의 힘임을 새삼 깨달아야 하였다.

자(自)와 타(他)는 이제까지 그에게는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힘이 우주나 다른 생명체의 제8식에 들어있는 그 무형무색의 무명한 힘과 하나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그 무렵하고 거친 사바세계 빛사공의

마음이, 그 무육도의 개척자 인담의 뒤를

따라다니던 무뚝뚝한 눈썹이와 웃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내다버리는 그 때배에 두 여자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짐승들의 동작을 담은

듯이 과감하게 탔다.

두 사람은 아무런 보통이 하나 없고 걸

망 하나 없는 빈 몸이었다. 그런 빈몸과

빈 마음이 되어 그들의 정신을 허허하루

닥을 수 있었던 섬을 떠나는 것이었다.

어떤 순간적인 합의의 용기도 어떤 오

래된 계획도 아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여일전 두 사람이

서로 여자에게 있어야 할 생각이 거의 같

은 무렵에 걸린 것을 고백하다가 그들의

마음 길이 생겨나고 있던 섬에서의 탈출

까지 의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해탈의 징조인가 생리가 끊긴 두 여자는 때배에 몸을 실었다

속의 해초와 산호들로 이루어진 동산까지 갖추어져 있다.

이 아수라계에서 그 악역을 맡치고 있는 자가 라후라이아이다. 그가 꽤 머리를 33천이나 해와 달을 때다가 제 귀고리로 만들어 달고져 하거나 하늘의 여인(天女)을 그리워한 나머지 바다밑의 한 구석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다 위 아수라한 수미산을 오르기도 하는데 그 때마다 햇빛에 눈이 부서 하늘의 여인을 볼 수 없어서 오른손으로 해를 덮어버렸다는 말도 있었다.

그것이 일식이었다.

달을 덮어버리기도 하였다. 그것이 월식

이었다.

아무튼 이런 해 하나 달 하나 그리고

별들을 더하면 그것이 1세계를 구성한다.

이 1세계가 1천개에 이르는 세계가 소

천세계이고 그 소천이 바로 1천을 말한다.

이 1천으로서의 소천이 다시 1천개로

나를 남겨두는 일 없이 소멸될 때는 일체로 함께 소멸되고 생성될 때는 일체로 함께 되는 그런 광대무변의 공동체로서의 우주인 것이다.

바로 이 3천대천세계의 밖으로 붙어있는 색계의 2·3·4천(天)의 하늘 세상과 그 위의 무색계는 전혀 딴 세상도 아니다.

다만 무색계는 넓이를 가지지 않으므로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무색계의 유정(有情) 생명체가 있으므로 시간은 초월한 것이 아니다. 무색계 생명체들의 수명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3천대천세계와 색계 무색계들의 세계가 오로지 단일의 우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구사론(俱舍論)의 한계에 앞서서 다른 경전들은 소천세계가 1천의 해로부터 1천의 범천(梵天)까지 밖에 포함하지 않으나 증천세계가 되면 1백만의 해에서 1백만의 범천과 다시 1천의 2천천을 아우

무육도는 그런 대해를 우주의 어딘가로, 수미산의 어딘가로 보낸 뒤 텅빈 섬이 되었고 그곳을 진작 떠난 방탄승 수월의 객사 소식을 듣지 않았음에도 최소한 인담과 우녀의 마음 속은 대해에 잃은 것이 상의 해탈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행하는 바 밋 없음과 모든 현상에 입자 없음을 말하는 일은 정작 한갓 이야기 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무육도는 그런 이야기 없어도 너무나 그런 사실을 꿰뚫어 끼치면 캄캄한 것 처럼 확실한 노릇이었다.

밤이 깊었다.

대해가 세상 떠날지 두달이 지났다. 아니 여기에서는 알 까닭이 없는 수월이 길가에 쓰러져 죽은지 두달이 되어가고 있는 어느 날의 가을밤이었다.

상현달은 먼저 수광선 아래로 내려갔다.

밤바다에서 풍겨오는 그 짙은 내음 가운데는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이슬의 상

**법** 화강의 한 대륙은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해탈의 능력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그 해탈 이전에 여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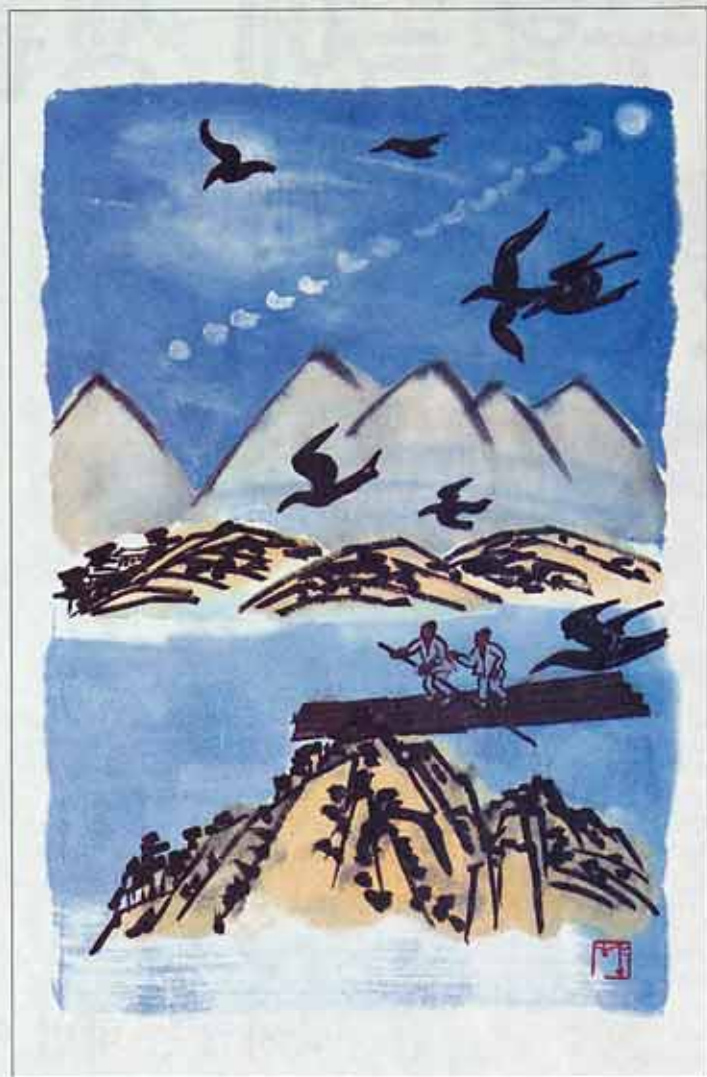
법화경 재바달다품의 용녀(龍女), 문득 남자로 변한 용녀. 성기(性器)의 국부가 갑자기 푸그러진 곳에 갑자기 남자의 성기가...

고대 인도의 마누법정(法典)과 같은 여성 절대대중의 독선으로부터 크게 나아간 경지이지만 여전히 남성 본위의 의미를 다 탈내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아니, 비구계 250계에 대해서 비구니계 500계는 또 무엇인가.

상을과 소색행자에게 갑자기 월경이 끊긴 사실은 그를 자신을 약간 당황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해탈이라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 서로에게 말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따위 헛된 꿈을 꾸어 누구한테 말하고 말고 할 노릇도 아니었다. 뒤에 꿰어라도 난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이 생리에 이상이 생긴 청정한 두 여자는 서로 현몽속이 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계율생활에서 탈락되어 마땅하였다. 여자의 퇴경 이전에 경도가 끊긴 것은 불구이기 때문이다. 남자도 남근이 발육되지 않은 것이나 15일 동안은 남근이었다가 15일동안은 남근이 오그라드는 것은 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자한테도 5종불녀(五種不女)가 그런 대상이다.

두 사람은 밤의 밀물때에 맞추어져서 때배가 바닷가로 잘 나아가는 동안 처음 오 섬 밖으로 나가는 그 두려움과도 같은 설레임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때배의 사대를 들어올려 꼭 그러쥐고 있었다.

"이 길이 어떤 길일까?"

"백작간우에도 길이야 있었지."

그림·조향숙

###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권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일예
- 불교관련용품
- 정보보안서비스
- 지체용품
- 연애
- 각종행사
- 신앙용품소개

단,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거나 본지 편집에 밀려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9345, 팩스:777-1917

###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 시술원

주. 아. 711-43370 주. 543-7306 주. 543-7306

院長 張三洙 梁구정역

###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익스님 후원. 시. 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 순수한 경문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의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신작순 한정본(품)

● 주문 신정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682-6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硯會 466-2116 (夜)216-0307

### 백자기 분수대 00% 특별할인판매

전문 도예가 작품 (반해도에, 전통도예)

大 130,000원  
中 100,000원  
小 75,000원

낙관 보증서 제공 야간 조명등 부착

건조하고 탁한 공기를 신선하고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공급처 : K.C 종합상사 884-0468-9 FAX 889-6705 관악구 신림본동 11-19

###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공합, 학생적성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사 韓國民俗哲學研究所

###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 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 불미물사

사람의 피부에 미치는 악몽, 역학, 역물(물)대신, 청동부처님, 청동불상 청동불(청동)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청동불사상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사찰의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일사로 진행 본인이 직접 찾아 뵙고 원하시는 대로, 도안과 주위 조정 계획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331)282-2931 (011)211-2931 비비 015-8415-2931

### 스님 염불 전용 녹음실 염불 전용 녹음실

- 세계 최신녹음 장비
- 경력 30년의 녹음기술
- 염불 녹음 하실 스님
-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 스님

그러나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도 출가 사문 입니다.

연락처 : 0417)551-1562 신선암 주지 김광덕 합장

### 귀의 삼보하고도 하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알다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재작한 불교그림동화(한역) '깨달음의 세계' (6부작) 및 단행본 '부처님알대기'가 재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소설, 시, 수필 및 사색)에 필요한 염불, 염불공부를 의뢰하시면 성실 성의껏 기획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drunet TEL. (02)932-6327, 937-5759

### 탁자, 달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역적

- 탈(대천사) 대적광전 법상 경찰
- 의왕사(대천사) 대웅전 수미단 단청 문패
- 서울(대천사) 법당 수미단 조각 복원화
- 용인(삼보사) 대웅전 문패
- 화진(법보사) 대웅전 벽부전 문패
- 충무(삼보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찰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패 단청
- 모산(약천사) 대웅전 문패 단청
- 단양(선천사) 대웅전수미단단청경찰
- 서울(현암사) 회관 문패,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현 드론 011-282-4609  
자 맥 02-248-4609  
공 장 0346-571-9638  
호 줄 012-210-1401

### 氣 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말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직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